

April 18 부활, 그리스도인의 뿌리

• 골로새서 2:6-7

부활 신앙을 가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철저하게 ‘가치가 전도된 삶’(upside down kingdom)을 살게 됩니다.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골 2:6)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자 기본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신뢰하면, 그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했으면, 실제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나 응답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끝까지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골 2:6). ‘행하다’의 원어적 의미는 ‘걷는다’입니다. 매일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주님 안에서 걷는 것입니다. 단숨에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께 ‘반응’하고, 내주하신 성령으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활의 능력’에 깊이 뿌리 내려야 합니다(골 2:7).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외부 요인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를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습니다. 부활에 깊이 뿌리내린 신앙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의 거룩한 영으로 인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요일 5:12; 요 7:38).

나의 신앙은 부활에
뿌리내리고 있습니까?

- ① 성령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 ② 그저 믿음을 가졌을 뿐입니까, 아니면 믿음대로 살고 있습니까?